

5월 구역예배 순서지

예담교회

인도자용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436장 · 나 이제 주님의 | 다같이

기도 | 구역원 중

성경말씀 | 고린도후서 4장 7-14절 | 다같이

“제목 : 보배를 담은 질그릇”

7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8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9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10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11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12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13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14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살피기 | 다같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것으로 잘 깨지고 부서지기 쉽고 값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지면 버리고, 또 사고,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7절).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요 천하에 둘도 없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망가지기 쉬우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미있고 목적 있는 참으로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1)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입니까?

①예수 그리스도 ②황금 ③돈

질문2)우리를 다시 살릴 분은 누구입니까?(14절)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

말씀묵상 | 인도자

처음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히/아담), 땅(히/아다마), 흙·먼지(히/아파르)가 모든 같은 의미의 말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불면 사라지는 티끌과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그릇입니다.

이제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주 값비싸고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담긴 것이 하찮은 것이라면, 그릇의 가치는 별 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해도 거기에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으로 회심한 후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몸이 당하는 고난이었고, 마음의 아픔이었으며 영혼에 가하는 매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하였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주저앉히거나 헌신과 봉사의 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와 제한을 가진 채 사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은 죽음 이후의 보이지 않는 영원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의료기술이 발달 되면서 수명이 연장되어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는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겉사람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의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적용 | 다같이

1. 지금 겉 사람으로서의 나와 속 사람으로서의 나의 관심은 각각 무엇입니까?
2.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눔 | 다같이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
3. 교회 일정 나누기

합심기도 | 다같이

마침 | 주기도문 | 다같이